

테마칼럼

다성비평

비리의 광장

경제의 눈

행민관행

투자백서(白書)가 필요한 이유



조담

투자백서는 중간 책임자의 행동을 더 신중하게 하고 주민들의 판단이 더 현명해지도록 하는 학습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것 중의 하나는 어떤 투자계획이든 투자지출보다 더 큰 미래 소득이 얻어지면 채택되는 것, 즉 순수한 경제적 판단에 의존하여 실행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주민의 존재가 명확하지 않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체의 투자계획의 경우, 이런 생각은 현실과 한참 거리가 있는 순진한 생각이다.

흔히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후보들은 여러 가지 대형 투자계획을 제시하고, 그 투자가 이루어지면 장밋빛 미래가 약속될 것처럼 설득함으로써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달성하려 한다.

원하는 사실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정부기관의 장이나 후보자들은 화려한 투자계획을 제시하여 국민을 현혹하려는 정치적 유인을 갖는다.

다른 한 가지 방법은 큰 규모의 공공투자에 대해 실행 과정 및 실행후에 반드시 투자백서를 작성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백서란 어떤 사업의 계획 및 실행상황, 예산 및 재원조달, 총괄 및 부문 책임자 등을 정리하고, 계획과 실제 진행 결과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 차이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 차이에 수반되는 성과 또는 책임이 누구 닮았는지, 그런 것들을 솔직하고 냉정하게 기록하는 것이다.

공공투자의 집행과정 또는 집행 후에 백서가 냉정하게 작성된다면, 그래서 잘못된 계획이 사후적으로 엄중하게 평가된다면, 투자계획이 훨씬 더 신중하게 작성될 것이고 우리의 세금은 더욱 소중하게 사용될 것이다.

지금 여러 가지 중요한 지역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 늦기 전에 각 사업별 투자백서가 작성되어 그 성과를 중간 또는 최종 평가받아야 한다.

광주지역에서는 광주 제2순환도로, 시청 신축이전 사업, 도시철도 사업이 우선 그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고, 전라남도에서는 무안국제공항, 도청이전 사업 등이 그 대상으로 되어야 할 것이다.

이왕 한번 결정할 것, 밀어 붙이지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지금의 진행상황이 계획된 내용과 어떻게 다른지, 그 공과가 어떤 이유, 누구 책임인지 냉정하게 다시 한번 따져 보는 것이 세금을 아끼는 길이고 국민이 정치를 바른 길로 이끄는 방법이다.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세계박람회 여수 유치 낙관할 상황 아니다

2012세계박람회 여수 유치에 적신호가 켜졌다고 한다. 모로코가 아프리카 및 이슬람권과의 강력한 연대를 바탕으로 급부상하며 여수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여수세계박람회유치지원위원회 등이 전하는 모로코의 유치활동은 전방위적이다. 국왕이 직접 나서 '아프리카와 이슬람권 최초의 박람회'를 내세우며 '황제의교'를 펴고 있다.

지적국의 세계박람회기구(BIE) 회원국 가입이란 편법도 쓰고 있다. 모로코는 경쟁 상대인 한국, 폴란드와 '지적국을 가입시켜 표 확보를 금지하는 BIE 윤리규정을 지킨다'는 내용의 신사협정을 맺었지만 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최근 시리아와 파키스탄, 에콰도르 등이 모로코의 권유로 회원국에 가입했고 이집트 등 2개 국가도 신규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회원국의 대륙별 분포도 우리에게 유리한 편이 아니다. 개최지 결정 투표에 참여하는 회원국은 현재 101개 국가로 유럽 36개국, 중남미 26개국, 아프리카 14개국, 아시아 13개국, 중동 9개국, 오세아니아 3개국 등이다.

중요한 것은 정부의 외교력과 정보력이다. 모로코의 '더티 플레이'는 비난을 받아야 하지만 상황을 치밀하게 분석, 대응책을 마련해야 여수 유치가 성공할 수 있다.

정부는 유치전략을 총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외교적 역량을 강화해 2차 결선투표에 갈 경우까지 대비해야 한다.

'서브프라임 사태' 파장 철저히 대비해야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 부실로 촉발된 미국발 신용경색 여파로 중시가 폭락하고 환율이 급등하는 등 국내 금융시장이 요동쳤다.

16일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25.91포인트(6.93%)나 하락했다. 이는 종전의 사상 최대 낙폭 기록인 지난 2000년 4월 17일의 93.17포인트를 훨씬 웃돈 것이다.

이날 주식시장은 사이드 카 발동, 최대 낙폭, 하락률, 하락종목, 외국인 매도 최대치 등 좋지 않은 기록은 모두 쏟아냈다. '패닉'이란 말을 실감하게 한 최악의 장이었다.

문제는 신용경색의 진앙지라 할 수 있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이

좀처럼 개선될 조짐을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글로벌 유동성이 빠져 나가면서 우리 증권시장과 부동산 시장이 장기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후폭풍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금융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정부는 금융·대출기관이 위험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신용경색이 나타나지 않도록 유동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34/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의로 칼럼 최지윤. 여름 하면 생각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중 단연 은빛 백사장과 푸른 파도가 출렁이는 해수욕장이 아닐까 싶다.

기고 강동완. 10여년전 뉴욕 브로드웨이에서 뮤지컬 '미스사이공'을 관람한 적이 있다. 그때 뮤지컬이 단순한 무대공연이 아닌 상상력과 첨단과학의 복합적 산물임도 알게 되었다.

휴가철 물놀이 후 "급성충농증" 조심. 설사병 등을 일으키는 각종 세균과 바이러스·미생물이 우글거리기 때문이다. 대부분 정상인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환균운동성 비염이나 호산구성 비염 등 코의 점막이 과도하게 예민한 사람은 수영장의 소독약이나 이러한 세균 바이러스 등에 의해 부비동염이 올 수 있다.

상상력과 일자리. 자동차 산업도 마찬가지다. 자동차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기계공학과 디자인 형태, 그 외에도 수백 가지의 기능적인 요소들이 요구된다.

벌 쏘임 사고 발생시 신속히 119나 주위에 알려야. 8월이 시작되면서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출동 중 해나 벌집제거와 벌에 쏘인 환자 이송이다. 벌에 쏘였을 때 증상은 손상이 발생한 병변의 위치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데 급작스런 통증, 충창, 발열, 가려움증, 두드러기, 입이나 혀의 부종, 기도부종에 의한 기도폐쇄, 흉부압박, 기침, 호흡곤란, 불안감, 복부 통증 등 그 증상이 다양하며 사람에게 따라 사망에 이르는 위급한 상황까지 발생하는 위험한 증상이다.

보행자 위협하는 자전거 횡단보도 주행 안된다. 복잡한 출퇴근 시간에 차량이 밀리는 틈을 이용하여 요리조리 고개운전을 하는 자전거 운전자들을 볼 수 있다. 자전거는 작은 충격에도 큰 사고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잊은채 고개운전을 하는 운전자들을 보고 있으면 불안할 뿐이다.

無等鼓. 대학가에서 한 때 '선풍기 교수'라는 말이 유행했다. 학생들이 제출한 시험 답안지를 선풍기 바람에 날려 가장 가까운 곳에 떨어진 것부터 A·B·C·...순으로 좋은 점수를 준다는 것이다. 글씨로 백백이 채운 답안지일수록 상대적으로 무거워 멀리 날아가지 못할 거라는 논리를 꾀다.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喆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